

유명한 범죄학전문가인 최윤교수는 도시범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 위해 p시로 내려왔다. p시 경찰지청의 간부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 이 모임이 끝나자 최윤교수는 저녁을 함께 든 뒤 호텔에 돌아와 밤늦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 6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깬 그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p시 경찰지청 형사과장인 김대룡총경이었다. 『최교수님 죄송합니다. 미스터리사건이 터져서 자문을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교수는 미안해 하는 옛제자 김총경을 방안으로 안내했다. 김총경은 사건의 전말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난 밤 8시경, 강영자라는 여인이 이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여인의 남동생인 강심씨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경에 그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 이종서씨와 심하게 다툰 뒤 집을 나와 이 호텔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김총경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강심씨는 얼마 뒤 호텔에 전화를 걸어 누이 강영자씨가 919호에 투숙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교환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했으나 대답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는 밤새 여러번 누이와 전화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겁이 덜컥나서 새벽 4시경에 호텔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호텔에 도착한 강심씨는 숙직원과 함께 919호실을 찾아 여러번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호텔지배인을 불러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강심씨에 따르면 방안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고 핸드백과 트렁크와 가방속에 있는 속옷과 의상들은 옷장과 서랍속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다만 한가지 수상쩍은 점은 창문 하나가 위쪽으로 젖혀 있어 그 사이로 밤새 내린 비가 뿌려 바닥과 카펫이 흥건히 물에 젖어 있었다. 강심씨와 지배인은 곧장 창가로 달려가 밑을 내려다 보았다. 거기 호텔뒤쪽 골목에는 사람이 누워있었다.

강심씨는 금방 그가 누구라는 것을

나 강심씨는 누나가 피살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는 범인이 남편인 이종서씨라고 우깁니다. 실상 경찰청으로서는 이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번질까봐 걱정입니다. 강심씨나 이종서씨는 두분 모두가 p시 최고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인데다 서로 심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총경의 설명에 따르면 강심씨는 언제나 누나가 이종서씨와 결혼한 것을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영자씨가 죽기 2~3일전 「강」·

함께 푸는 미스터리 < I >

919호실의 살인사건

강영자씨를 살해한

알아차렸다. 새벽의 어스름한 빛속에서도 붉으스레한 머리색깔로 그의 누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배인이 경찰에 전화를 거는 동안 강심씨는 황급히 아래로 내려가 죽은 누나결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경찰에게 죽은 사람은 누나라는 것을 확인했다.

김총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최교수는 입을 열었다.

『그래 자살이었던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으

「이」 두사람은 텔레비전 쇼에 손님으로 나와서 「완전살인」을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로 토론을 벌였었다. 완전살인이란 누가 범죄를 저지른 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라는 데에 두사람이 뜻을 같이 했다.

이종서씨와 강심씨는 서로 상대를 살인범이라고 비난하면서 범행을 하게 된 동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서씨는 최근 강영자씨가

유언을 바꾸어 상당한 재산을 남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강심씨가 자기 누나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강심씨와 그의 처 심정자씨가 투자한 부동산 거래에서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편 강심씨는 이종서씨가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져 처와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강영자씨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히고 만약에 강심씨가 누이 강영자씨 살해범으로

시에 투숙했다고 기록되었으나 그뒤 살아 있는 강여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종서씨는 그 전날 7시이후 내내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다. 그는 강영자와 싸운 뒤 오후 7시부터 집을 나와 친구들과 지냈으며 친구집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실제로 경찰은 이른 아침 그를 친구집에서 찾아냈다.

한편 강심씨의 알리바이는 처와 함께 밤새도록 집에 있었고 그동안 누

은 최교수에게 이 네사람을 직접 심문해보지 않겠는가 물었다. 최교수는 우선 이종서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뚝뚝하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이종서씨는 『내가 강영자씨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소. 그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강심씨가 한 짓이요』라는 말 외에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번에는 강심씨에게 묻자 그는 『이종서씨가 완전살인을 범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어요』라고 답변했다. 최교수는 만약에 이종서씨가 범행을 했다면 당시 멀리 떨어진 곳에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 그가 어떻게 호텔에 와 있을 수 있었겠는가고 물었다. 강심씨는 많은 범죄를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최교수가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고 했다.

최교수는 되받았다. 『강선생께서는 누님을 알고 계시지만 나는 모릅니다. 혹시 호텔방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이라도 찾으셨는지요?』 강심씨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한참만에 그의 누이가 집을 나서면서 갖고 나간 옷가지가 너무 적은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최교수는 곧장 김충경을 찾아가서 혐의자 네사람이 아직도 경찰청에 있는 동안 수색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김충경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최교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면 강영자가 어떻게 살해되었고 누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려 주겠소』라고 말했다.

강영자씨를 살해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春堂人〉



범인은 누구인가요

유죄가 밝혀지면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강영자의 남편으로서 이종서씨가 유언의 법적효력을 없앨 수 있어 강심씨 대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찰은 강영자씨 집에서 그를 태우고 핸드백과 트렁크와 가방 등 짐을 실은 뒤 호텔까지 날라다 준 택시기사를 찾아냈다. 차가 호텔에 도착하자 호텔 도어맨과 벨보이는 짐을 내려 919호실까지 운반해 주었다. 호텔장부에는 강영자씨가 오후 8

이와 전화접속을 시도하다가 새벽에 호텔로 찾아갔다.

김충경은 대충 이렇게 사건의 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문제를 파악하셨습니다니까?』고 물었다. 『예, 알겠소』라고 대답한 최교수는 자리를 919호실로 옮겼다. 그는 빈 백과 트렁크와 가방을 살펴본 뒤 옷장속에 걸린 의상과 서랍속의 속옷들도 대충 훑어보았다.

최교수는 다시 경찰청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이종서씨와 그의 애인, 심정자씨 그리고 강심씨가 강력계형사들의 심문을 받고 있었다. 김충경